

[종합] 민주노총 산재사망 합동추모식 ... “죽음의 행렬 멈춰라”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1.06.19 17:48

우리는 오늘도 ‘우연히 살아남았다’...노동자 안전이 시민의 안전
경찰, 산재 사망자 유족 포함 2명 연행 ... 부상 입어 병원 이송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과 중대재해에 분노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였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합동추모식을 열고,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을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추모제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참가자들을 막아서며 진입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명과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장덕준 씨의 아버지가 남대문서로 연행됐다.

장 씨의 아버지는 연행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럼에도 경찰의 과잉진압이 계속되자, 장 씨의 어머니는 “생떼같은 우리 아들이 일하다 죽었다. 내새끼 추모하려 단 한시간만도 내어줄 수 없냐”고 절규하며 무릎을 꿇었고, 잠시 실신하기까지 했다.

참석자와 경찰이 25분간 대치한 끝에 참석자들이 경찰의 펜스를 뜯고 진입하며 합동 추모제는 시작됐다.



합동추모제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하려는 민주노총 참가자들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절반을 죽여도 된다는 말이다. 그따위 정신머리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대하니까 죽음이 멈추지 않는 것 아니냐”고 분개하며 “노동자가 살지 못한다면 노동단체는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조직된 110만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이지말라고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라며 결의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광주 건물 붕괴사건을 보며 다시금 깨닫는다. ‘정규직이었다면 안죽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라고 한 뒤 “오늘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노동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그 길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앞장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문성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 북부분회 조직부장은 “2019년 409명, 2020년 446명. 오토바이 숫자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가는데 오토바이 사망자는 늘어난다. 바로 우리 배달노동자의 죽음이다”라며 “배달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명이 넘게 도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압박하는 회사는 몰라라하고, 왜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냐고 지탄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강보나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로켓, 새벽, 당일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극한노동에 시달리는 쿠팡의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산재와 과로사 위협에 노출됐다. 쿠팡이 자랑하는 물류혁신과 막대한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생한 쿠팡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 쿠팡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권리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없이 사망, 산재, 집단감염, 화재피해가 계속 반복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사망한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도 발언대에 올랐다. 박미숙 씨는 “아들이 27세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비라도 벌겠다고 시작한 일이 1년 반도 안돼 아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며 “얼마나 힘이 들었기에 회사에서 말하는 노동강도가 가장 약하다는 곳에서도 건강한 청년이 1년반을 견딜 수가 없는 건가”라 반문하며 “남은 가족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제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여기서 멈추어 달라. 우리의 부모를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식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이들은 추모제를 진행한 뒤 올해 산재사망 노동자 영정 344개와 함께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막혀 해산했다.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